

Daily Auto Check

2020. 7.28(Tu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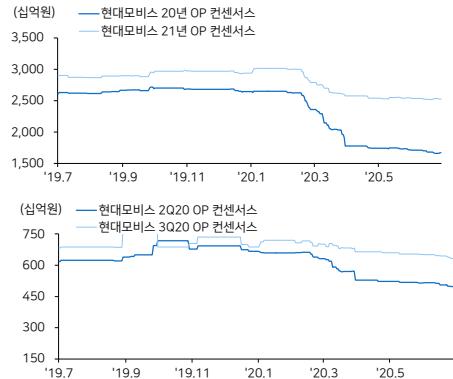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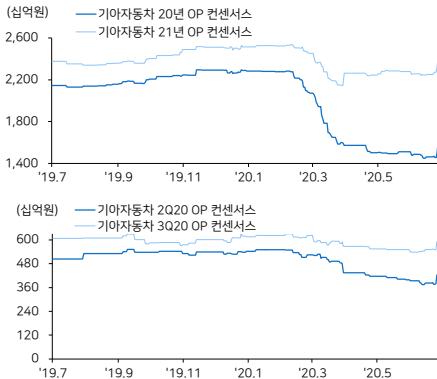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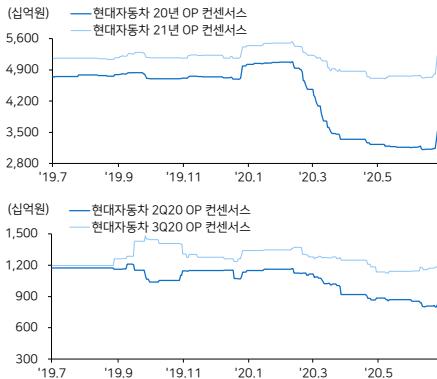
RA 이다빈

02.6454-4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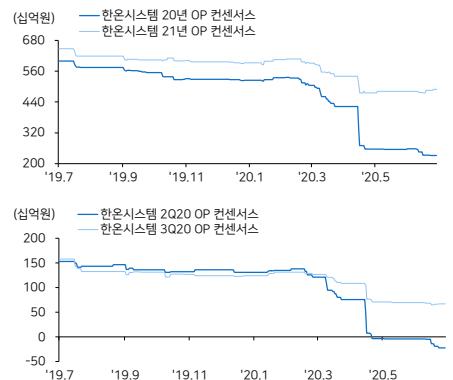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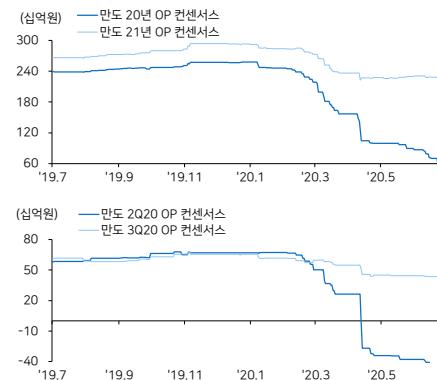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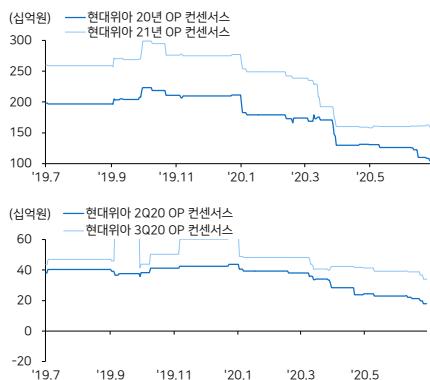
dabin.lee@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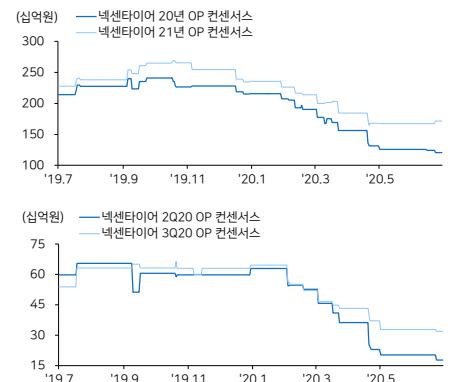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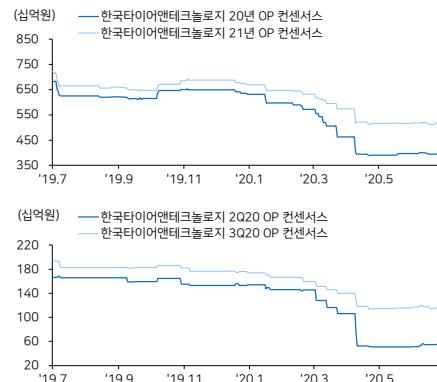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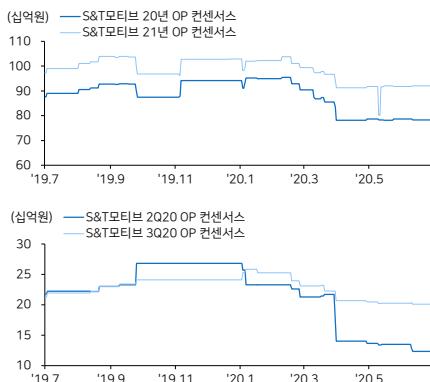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GV70'을 연말 장식한다...제네시스, '준비운동 끝' (아시아타임즈)

GV80에 이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제네시스의 두 번째 SUV 모델인 GV70이 연말 출시될 전망. 제네시스는 내년 상반기에는 플래그십 모델인 G90 신형을 출시하는 등 꾸준한 신차 출시를 통해 '신차효과'를 극대화할 전망.

<https://bit.ly/2P3e4Jc>

방글라데시 대기업 페어그룹, 현대차와 조립공장 건설 '맞손' (글로벌이코노미)

방글라데시 대기업인 Fair Group이 현지에 현대자동차와 함께 자동차 조립 공장을 건설. 방글라데시 자동차 시장에 페어 그룹 자사 브랜드로 자동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으로 현대차와 독점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

<https://bit.ly/2P2SPa8>

중국서도 수소차 시장 급부상...다국적기업 각축장 (뉴스)

중국의 수소차 시장이 급부상하고 있음. 중국 수소전기차 시장이 다국적 기업의 새로운 각축장으로 떠오른 만큼 우리 기업 역시 전략적으로 진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옴.

<https://bit.ly/3hAHFpo>

日 토요타의 글로벌 부품사들에 '가격 깎아달라' (머니투데이)

일본 토요타자동차가 부품업체들에 가격 인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짐. 코로나19로 인한 판매 감소가 주원인. 토요타는 2차 하청업체까지 전출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옴.

<https://bit.ly/3jfi3eXT>

현대차, 폐쇄 러시아 GM 공장 인수 신청서 현지 당국에 제출"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자동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 공장 인수를 검토하면서 러시아 반도정부에 인수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GM 공장은 몇 년째 폐쇄된 상태.

<https://bit.ly/2P3e4Jc>

현대차 실내공기 편의해진다...필립티 에어 공조기술 개발 (매일경제)

현대차그룹이 차량 내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보다 편의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공조 기술을 개발. 현대차그룹은 향후 출시되는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신차에 선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힘.

<https://bit.ly/3hFB2ID>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인류 위협할까 (아시아경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설립한 AI 연구기관 '오픈AI'가 공개한 자연어 처리 모델 GPT-3의 성능에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GPT-3는 오픈AI가 개발한 인력 생성 프로그램.

<https://bit.ly/2CSK14j>

일본, 국내 자동차 공장 잇따라 폐쇄...한국은? (중앙일보)

'리소어풀'의 모범 국가였던 일본이 자국 내 생산자 공장을 잇달아 폐쇄 중. 수도 청벽에 따라 국내 생산 감축에 나선 것. 세계 자동차 시장이 격변하는 상황에서 한국도 비슷한 상황을 맞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옴.

<https://bit.ly/330elE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